

미국, 파리올림픽서 제2의 리딤팀 구축할까

농구 월드컵에서 자존심을 크게 다친 미국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화려한 '리딤(Redeem)팀'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이날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들이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이상 LA 레이커스),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막을 내린 2023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준결승에서 독일, 3-4위전에서 캐나다에 연달아 탈미를 잡았다. 직전 대회였던 2019년 7위에 그쳤던 미국은 이번 대회 베스트5에 뽑힌 앤서니 에드워즈(미네소타)를 비롯해 재런 잭슨 주니어(멤피스), 제일런 브라운(뉴욕) 등을 내세워 자존심 회복을 노렸지만 다시 한번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 왼쪽부터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스테픈 커리. 사진=nba.com

이에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SPN은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케빈 듀랜트, 데빈 부커(이상 피닉스),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드레이먼드 그린(골든스테이트)은 물론 2008년과 2012년 올

림픽 금메달리스트 크리스 폴(골든스테이트)도 대표팀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이클 조던, 래리 버드, 칼 말론 등 NBA 스타들을 모두 뽑은 '드림팀'을 처음으로 구축했던 미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에 그치고 농구 월드컵에서도 부진하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만회라는 뜻이 담긴 '리딤'을 붙여 '리딤팀'을 꾸렸다.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등 스타들이 주축이 됐고, 이는 미국이 도쿄 올림픽까지 올림픽 4연패를 달성하는 시발점이 됐다.

이번에도 미국이 리딤팀을 구성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제임스와 커리의 호흡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 차례 올림픽에 출전했던 제임스와 달리 커리는 올림픽 출전이 한 번도 없었다. 둘은 서로 같은 팀에서 된 적도 없었다. 현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 사령탑이 커리의 소속팀 감독인 스티브 커라는 것도 커리의 합류 가능성을 높인다.

클린스만호 첫 승에도 가라앉지 않는 비난

한국 축구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6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술적인 움직임은 부족했고 일부 선수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등 경기력이 불안했다. 더구나 지난 2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후 A매치 일정이 아니면 해외에서 머물고 한국에서 머문 시간이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더해져 클린스만호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영국 잉글랜드 뉴캐슬어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32분 터진 조규성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이날 슈팅에서 19-7개, 유효 슈팅에서 9-2개로 앞섰으나 추가골을 넣지 못한 채 1골 차리드를 간신히 지켜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7개월 만에 승리를 쟁겼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전까지 5경기에서 3무2패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사령탑제를 도입한 후 취임 뒤 최다 연속



▲ 조규성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무승 기록이다.

첫 승에도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8위 한

국은 54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앞선 전력을 갖췄기에 이날 경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국은 대표팀 24명 중 10명이 유럽파이고, 손흥민(토트넘 홋스퍼)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월드 클래스'로 분류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6명 전원이 사우디 프로리그 소속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직후부터 공격축구를 강조했으나 지난 6경기에서 다득점 경기는 데뷔전이었던 지난 3월 콜롬비아전(2-2)이 유일하다.

수비에서도 경기마다 수비진 핵심 김민재가 개인 능력을 앞세워 상대의 돌파를 차단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조직력 부족으로 시종일관 불안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다음 달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31위), 1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베트남(95)과 평가전을 치른다. 예정된 2차례 평가전에서 향상된 경기력과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